

월간 <국방과 기술>誌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다 사다난했던 1998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총체적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던 戊寅年이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가슴 벅찬 己卯年 새해를 맞아 관계기관과 회원사 임직원, 육·해·공·해병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방위산업 초창기인 1979년 1월 국방전문잡지의 필요성에 의해 창간되어 그동안 선진국의 최신 무기체계와 발전 추세, 국내·외 국방 뉴스 및 방산업계 동향 등을 제공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월간 <국방과 기술>지가 창간 20주년을 맞게 됨을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며, 훌륭한 玉稿를 보내주시는 필자 여러분과,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인은 물론 군조차도 방위산업 및 선진 무기체계에 대해 생소하고 일천한 국내 환경 가운데서 <국방과 기술>지는 전문가의 논지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첨단 무기체계 및 기술 정보를 소개하여 자주국방의 기반구축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국방전문잡지의 효시로서 이 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국방과 기술>지는 지난 20여 성상동안 제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방문화 창달과 우리 군 및 방산업체와 더불어 동반자적인 관계를 견지하며 국방기술 관련 전문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지하핵시설 의혹 등 여전히 국



제사회의 골치거리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차전은 과학기술전으로 첨단정밀무기의 운용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자주적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근 들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긴장도 다소 이완되는 듯한 틈을 타 비록 일부 계층에서나마 안보 의식의 해이와 함께 지속적인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 위협은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지속적인 육성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창간 20주년을 맞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기관과 회원사, 전·후방 장병, 애독자 및 어려운 여건속에서 발행에 힘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국방전문지인 <국방과 기술>이 세계 유수의 군사잡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인 裴 一 成